

사회적 시나리오를 찾기 위한 예비 연구: 관계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의 탐구

차재호 · *구자숙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Kelley의 상호의존이론(the theory of interdependence)에서 말하는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시나리오(Kelley, 1983a)를 탐색하는 예비적 작업으로서 이제까지 흔히 다루어진 정동(예: 공포, 분노, 기쁨, 행복)이나 단순감정(예: 쾌)과는 구별되는 관계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인관계에서 중요시되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9가지의 감정 차원들(친한 대 서먹한, 고마운 대 원망스런, 겸손한 대 아니꼬운, 사람다운 대 사람답지 않은, 솔직한 대 솔직치 못한, 이해심 있는 대 독선적인, 착한 대 못된, 공평한 대 불공평한, 미더운 대 미덥지 않은)을 대학생들에게 제시하고 18개 감정 각각에 대해 어떤 때 그 감정을 느끼는지를 적게 했다. 얻어진 반응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 정리한 결과, 각각의 관계감정을 일으키는 상대의 행동(상황)들은 소수의 분명한 유목으로 묶이며, 서로 구별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관계감정의 연구가 대인관계 시나리오 연구에 갖는 함의를 논했다.

상호의존 이론에서 Kelley와 Thibaut(Thibaut & Kelley, 1959; Kelley & Thibaut, 1978; Kelley, 1979)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상황의 구조를 결과 행렬(outcome matrix)로 나타내는데, 이 행렬표는 각 개인이 하는 행위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심리적 결과(이득과 손실)를 나타낸다. 이런 결과 행렬표는 대인관계의 상호 의존성을 잘 드러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 사람의 행동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상대에게 일정한 결과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선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선호의 구조 즉 주어지 행렬(given matrix)은 상대의 선호를 알게 될 때 변환행렬(transformed matrix)

로 바뀐다(Kelley & Thibaut, 1978). 변환(transformation)이란 각자가 자신의 결과를 수정하게 되면서 “주어진 상호의존의 형식을 체계적으로 바꾸어 이 변환된 패턴에 따라 행동함”을 의미한다(Kelley, 1983a, p.12). Kelley(1983a)가 사용한 예를 들자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왼쪽에는 상대의 선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두 영화 x와 y를 같이 혹은 따로 볼 경우에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가 나타나 있다.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서로 선호하는 영화의 종류가 다를 때 한쪽이 선호하는 영화를 같이 보러갈 경우 각자가 느끼는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나며(9와 1), 따로 각자가 선호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즉 따로 가는 경우)에는 둘 다 불만족하게 되고(-5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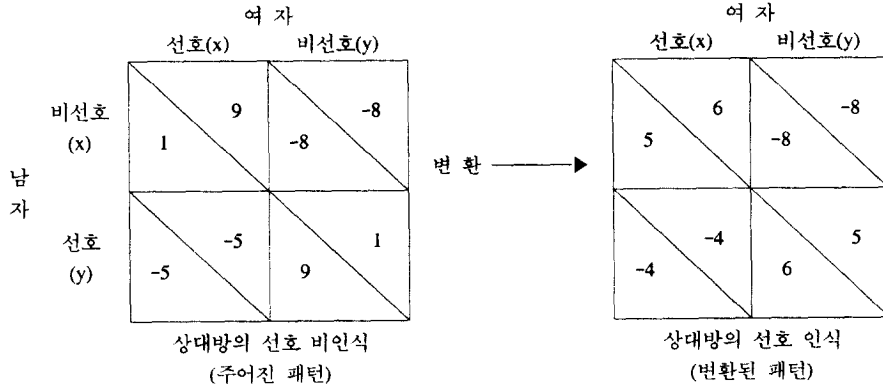


그림 1. 영화 선택 결과의 변환

-5), 각자가 선호하지 않는 영화를 따로 보는 경우 (비선호와 비선호)에는 가장 큰 불만족을(-8과 -8)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른 편의 행렬표는 상대방의 선호가 자신과 다를 것을 알고 난 후 각 상황에서 각자가 느끼는 만족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러 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영화(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영화일지라도)를 함께 보는 것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에 못지 않게 만족감을 주게 된다.

두 사람이 상호적으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어느 영화를 보러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환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이해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쉽게 합의될 수 있는 타협점을 제공하며,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끈다(Kelley, 1983a).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경향(action tendencies)인데, 이 말은 결국 사람의 동인(motive)과 같은 것이다. 이런 동인에 의해 상황이 재구성되어 변환 행렬이 생겨난다. Kelley는 변환결과행렬의 생성으로부터 인간 동인의 분류를 체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이제까지 인간 동인의 연구는 지리멸렬한 감이 있었다)(Kelley, 1983b), 또한 인간 정동을 도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Kelley, 1984b).

사람들이 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동(emotion)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정동은 후속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한다(Kelley, 1984b). 즉, 과거의 결과가 정동을 결정하고 그 정동은 장차의 행동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Kelley는 정동이 하나의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간 과정(intersituational processes)이라고 말한다.

Kelley(1984b)는 기존의 정동이론들(theories of emotion)에서도 정동을 상황과 연계시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Weiner(1980, 1982, 1983)는 상황을 성공 혹은 실패의 결과로 정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즉, 능력, 노력, 타인, 운 등) 정동경험이 달라짐을 지적했다. Abelson(1983)은 상황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로 정의하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행위, 타인, 요행 등의 여러 요인들 중 무엇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동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정동적 경험의 근원을 상황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이론들은 모두 정동이 선행사건 혹은 선행상황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후속 행동의 선행요인임을 가정하고 있다.

Kelley(1984b)의 감정(affect)에 관한 생각은 이것이 변형의 원인이 되며 또 일단 일어난 감정이나 정동은 다음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정의 종류가 상황×자신×상대방의 공간의 모습에 따라 생

겨난다고, 즉 공간의 모습만큼의 수의 다른 감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대인감정(interpersonal affect)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감정의 종류를 말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보고하는 조사는 사회장면에서의 시나리오(Kelley, 1983a, 1984a)를 찾는 예비적 시도로 시작되었다. Kelley(1983b)는 “시나리오(scenario)라는 말은 단지 두 사람간에 일어나는 특정한 상호작용계열을 의미할 뿐이다”(p.23)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두 사람간의 특정한 상호작용계열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제의 성질상 상호작용 중에 있는 두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반응 계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Kelley가 두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장면에서 함께 적응해 들어가는 과정, 즉 일종의 문제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 내는 타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Kelley가 말하는 의미의 상황(situation)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Kelley의 상황은 두 사람간에 존재하는 특정한 형태의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ce)이다. 그러나 사실 Kelley의 앞에서 본 시나리오 정의에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두 사람의 상호작용”하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Kelley는 실제로는 특정한 의존관계상황을 생각한 것이고 이 상황의 함수로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행동계열을 시나리오로 본 것이다. 즉, Kelley는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을 보려 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의 시나리오 연구는 Kelley(1984a, 1984b)에서 시나리오를 얻는데 사용된 것과는 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여기서는 먼저 감정 반응을 주고 이에 해당하는 상황을 지적하도록 한 것이다. 즉, 특정한 관계감정(예: “친하게 느끼게 할 때”)을 먼저 제시하고 이런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피험자 각자에게 적게 했다. 우리가 채택한 방법은 위와 같은 감정을 여러 가지로 주고 각각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행동 또는 상황을 자유롭게 적

게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가 시나리오를 찾는 연구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감정 또는 관계감정[Kelley(1984b)는 대인감정(interpersonal affect)이란 말을 쓴다]의 연구가 되었다. 이 관계감정은 (1)상황과 개인적(변환) 경향이 상호작용에서 하는 인과적 역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2)사람을 다음 상황과 경향으로 지향시키는(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상황과 경향(행동)에 대한 지시기능은 구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단순히 접근 또는 회피가 아니라 “접근+도움주기” 또는 “접근+통제”와 같은 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입장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Kelley는 그의 논문(Kelley, 1984b)에서 구체적인 대인감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가정을 한다. 상대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같이 가줄 때 “미안하다”는 감정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감정 때문에 변환이 오는 것이다. 즉, 나의 즐거움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동시에 나는 “고맙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의 대인 감정은 “미안하다”와 “고맙다”라는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안”이 “고마움”을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고찰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 준다. 대인관계에서는 이제까지 심리학에서 다루던 정동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감정(Kelley의 소위 “대인감정”에 해당할지 모르는… Kelley, 1984b)이 중요하며, 이들 감정은 때로는 위의 “미안하다”와 “고맙다”의 예에서처럼 같은 발생근원으로 인해 짝을 이룰 수 있고 인과적 계열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시나리오에 대한 탐색연구로도 의의가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심리학이 이제까지 등한히 해 온 관계감정들에 관한 개척적인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기서는 이런 대인관계 안에서 등장하는 감정을 관계감정(relations affect)라고 부르기로 한다.

방 법

피조사자

피조사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일반심리 원서강독” 수강생) 19명이었다. 모두 1학년생들이었다. 이 중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9명이었다. 이들에게서 첫 16개의 감정에 관한 응답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남녀 동수의 24명의 같은 학과의 학부생(역시 “일반심리 원서강독” 수강 1학년생들)에게서 마지막 2개의 감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도구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한 장으로 된 질문지였다. 앞에는 지시문이 있었고 이어 “자극”으로 반대되는 관계감정을 짝으로 엮어(“친하게 느낄 때” 대 “서먹하게 느낄 때”) 그런 짝을 9개 제시하고 각각(즉, 18개 각각)에 대해 어떤 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자유응답으로 적게 했다. 사용된 9개의 감정차원은 대인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며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일반적으로 중요시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다. 학생들은 질문지를 받았는데, 질문지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로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상대방을 다음에 제시되는 것같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 주시는 일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상황들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피조사자들은 16개(2차 추가 조사 때에는 2개)의 “관계감정” 각각에 대해서 자신의 반응을 기입하게 되어 있었다. 첫 질문지에 제시된 16개와 두 번째 질문지에 제시된 2개의 감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친하게 느낄 때
———— 2. 서먹하게 느낄 때
3. 고맙게 느낄 때
———— 4. 원망스럽게 느낄 때

5. 겸손하게 느낄 때
———— 6. 아니꼽게 느낄 때
7. 사람답게 느낄 때
———— 8. 사람답지 못하게 느낄 때
9. 솔직하다고 느낄 때
———— 10.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11. 이해심 있게 느낄 때
———— 12. 독선적으로 느낄 때
13. 착하다고 느낄 때
———— 14. 못됐다고 느낄 때
15. 공평하게 느낄 때
———— 16. 불공평하게 느낄 때
17. 미덥게 느낄 때
………… 18. 미덥지 않게 느낄 때

‘고맙다’ - ‘원망스럽다’와 ‘겸손하게’ - ‘아니꼽게’의 관계감정들은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관계감정들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양극적 쌍으로 엮어 생각한 것으로, 피험자들에게 감정을 제시할 때에는 독립적으로 한가지씩을 제시하고 그 감정들을 유발하는 상황을 적게끔 하였으므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조사절차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자료는 2차에 걸친 조사에서 얻은 것으로 첫 조사는 첫 16개의 감정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얻었다. 강의실에 나온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돌려 집단으로 첫 16개의 감정에 관한 응답을 차례로 기입하게 했다. 이 제1차 조사는 1988년 11월 17일에 실시했으며 저자들이 직접 조사에 임했다. 마지막 2개의 감정(미덥게 느낄 때, 미덥지 않게 느낄 때)에 관한 자료는 훨씬 뒤인 1992년 11월 5일에 추가적으로 수집되었다. 조사절차는 먼저와 같았다.

자료처리

얻은 자유반응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 각 유목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결 과

각 “자극(상황)”에 대한 자유응답을 내용 별로 분류 해서 반응한 응답자 빈도를 냈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한 연배의 친구와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나 소수는 이성 친구 또는 선배나 어른과의 관계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있었다. 따라서 먼저 동성(同性)의 같은 또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상황들을 다루어 보고 이어 이성 친구나 선배 또는 어른과의 관계를 다루겠다.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분류된 상황들을 다시 심리적 으로 유사한 것끼리 묶어 보다 소수의 유목으로 만든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얻는 관계상황의 유목은 곧 하나의 사회행동의 “시나리오”로 간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은 유목으로 묶기 이전에 있던 상황, 즉 학생이 기입한 상황(상대의 행동)에 더 잘 드러나고 따라서 시나리오를 아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지시문이 “상대방을 다음에 제시되는 것같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상대방에 대한 특정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 자료라는 것이다. 또한 첫 16개의 감정에 대해서는 19명이 반응했고 뒤의 2개에 대해서는 24명이 반응했음에 유념할 것이다.

1. “친하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친하게 느끼게 하는 장면은 예외 없이 여러 사회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차분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유목은 “신체적 접촉을 해 올 때”(예, 어깨를 잡거나 팔을 끼거나 손을 잡을 때)와 “인사를 반갑게 또는 다정하게 주고받을 때”로서 각각 6명과 6명이 지적했다. 반응들을 다시 묶어서 앞에 언급한 2개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유목에 딸린 수치는 그런 응답을 한 피조사자의 인원수이다.

- (1)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 6명
- (2) 다정한 인사, 미소, 말소리 교환 6명
- (3) 스스럼없이 행동(솔직한 언동) 2명

- (4) 나에게 뜻하지 않게 주의를 보일 때 2명
- (5) 욕설이나 장난을 칠 때 2명
- (6) 나에게 의존해 올 때 1명
- (7) 나를 받아 줄 때 1명

이들을 다시 더 묶으면 (1)신체적 접촉, (2)다정한 인사를 해 올 때, (3)스스럼없이 대해 올 때, (4)나에게 의존해 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5)나의 행동을 받아 줄 때로 요약이 된다. 이들 5개가 말하자면 친하게 느끼게 하는 행동 “시나리오”들이 셈이다.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된 특징은 아직 친하지 않은 단계에 “친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동료가 아닌 경우에 친하게 느끼게 만드는 상황은 **이성간**에는 내 앞에서 약간 당황스러워 할 때(1명)와 살짝 웃어 줄 때(1명)이고, **선후배간**은 충고의 필요를 느낄 때나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할 때(1명)이며, **모자간**에는 엄마와 같이 잘 때(1명)이다.

2. “서머하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상대에 대해서 서머하게 느끼게 만드는 상황은 13개가 언급되었는데, 비슷한 것들끼리 묶은 결과, 아래와 같은 유목으로 정리되었다.

- (1) 아는 사람이 보면서 아는 척 안하고 지나칠 때 7명
- (2) 오랜 시간 말이 없거나 말이 걸돌 때(점잖은 이야기만 할 때) 4명
- (3) 너무 예의바른 행동을 할 때(무표정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칠 때, 억지 웃음을 지을 때) 4명
- (4)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자신을 몰라볼 때 3명
- (5) 친구간에 육체적 접촉을 거부할 때 1명
- (6) 나의 걸모습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 1명
- (7) 분위기를 못 맞출 때 1명

서머하게 느끼게 하는 상황은 위 결과로 보아서 (1) 나를 모른 척하거나, (2)나를 몰라보거나, (3)말이 없던가 해서 감정 소통이 안될 때, 그리고 (4)거리를 두는 행동을 할 때의 네 가지로 요약이 됨을 알 수 있다.

동료가 아닌 관계에서의 상황은 2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연장자와의 관계**에서는 연장자가 실눈을 뜨고 바라볼 때(1명), 그리고 **이성간**에는 말을 걸어도 내 얼굴을 보지 않을 때(1명)가 지적되었다.

3. “고맙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고맙게 느끼게 하는 상황으로는 1차 분석에서는 14개 상황이 발표됐으나 이들을 다시 묶은 결과 다음과 같이 되었다.

- (1) 나의 생활이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때 7명
- (2) 나를 도와주고 믿어 줄 때 4명
- (3) 나를 위로해 줄 때 4명
- (4) 나의 말을 잘 기억해 줄 때 2명
- (5)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뜻 줄 때 1명
- (6) 내 의견을 존중해 줄 때 1명

이로 보아 고맙게 느끼게 하는 것은 (1)심리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받을 때, (2)나에게 관심을 가져 줄 때, (3)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줄 때, 그리고 (4)내 생각을 존중해 줄 때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지지(support)와 인정(recognition)이 고맙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 상대방의 자기 희생과 같은 상황이 빠진 것이 두드러진다. 응답자들의 연령으로 보다 상대위주보다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사람들이 기저의 결과구조(underlying outcome structure)를 잘 못보고 피상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희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결과는 못보고 자신의 결과만을 보기가 쉽기 때문이다.

4. “원망스럽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원망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상황은 1차 분석에서는 9개 유목이 있었으나 이들을 다시 더 묶은 결과 아래와 같이 되었다.

- (1) 따돌릴 때(모른척할 때, 무뚝뚝하게 대할 때) 4명
- (2) 무관심 할 때(오랫동안 연락이 없을 때) 4명
- (3)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방해할 때(바쁜 때 방해할 때) 3명
- (4) 약속을 안 지킬 때 2명
- (5) 기분이 상했는데 농담을 계속 할 때 1명

이로써 원망스럽게 느끼게 하는 상황은 (1)배척을 의미하는 행동, (2)무관심을 나타내는 행동, (3)내 일을 방해하는 행동, 그리고 (4)나를 알잡아 보는 행동의 4가지가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는 1차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겸손하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원래 상황은 16가지가 나왔으나 각 유목의 사례수가 거의 모두 1이이었으므로 더 적은 수의 유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다.

- (1) 남을 높일 때(자기를 낮추면서 대화를 해 올 때, 남을 칭찬할 때, 남을 존중해 줄 때, 상대를 필요하거나 유익한 존재라고 말해 줄 때, 선배가 말을 조심스럽게 할 때) 5명
- (2)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낼 때(술신해 맡은 일을 할 때) 4명
- (3) 자랑할 것도 자기 자랑을 안 할 때(우연히 맞은 것처럼 행동할 때,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을 때, 자기 이성 친구를 자랑하지 않을 때) 4명
- (4) 자기의 무지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때 2명
- (5) 진심으로 나를 대할 때, 진실한 웃음을 보일 때 2명
- (6) 상대가 모를 만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피해 줄 때 1명

이런 내용을 보면 겸손하게 느끼게 하는 행동 시나리오는 (1)자신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2)허세를 부리지 않고, (3)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거나 남을 낮추는 일을 피하는 행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내가 다른 두 사람

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감정은 거의 겸손의 성격 지각과 구별하기 힘들다.

6. “아니 꼭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여기서는 원래 18개의 다른 상황이 수집되었으나 이를 다시 더 줄여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되었다.

- (1)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자기만 생각할 때, 독선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 술값을 오히려 가난한 친구가 더 내게 할 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강요할 때, 공책 필기를 보여주지 않을 때, 단체로 한 일에 유독 생색을 낼 때) 6명
- (2) 거만하게 굴 때(깁보는 듯한 식으로 말 할 때, 남을 무시할 때, 이성이 인사를 해도 안 받아 줄 때) 6명
- (3) 잘난 체 하거나 허세를 부릴 때(어려운 말만 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각을 자기 것인 양 이야기 할 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아는 척할 경우) 5명
- (4) 자기 자랑을 할 때(자기 자랑을 계속 화제로 삼을 때, 아닌 척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때, 자기 이성 친구를 자랑할 때) 5명
- (5) 언니가 자기 옷을 못 입게 할 때 1명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니 꼭게 보이게 하는 행동은 주로 (1)자기 자랑을 하거나, (2)거만하게 굴거나, (3)잘난 체 하거나, 또는 (4)이기적으로 처신하는 행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행동은 간접적으로 이웃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웃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아니꼭다는 반응은 실제로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한다는, 즉 의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7. “사람답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사람답게 느끼게 하는 상황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나타난 상황 수는 20개나 되는 많은 수였다. 이들을

다시 묶은 결과, 다음과 같은 12개의 유목이 되었다.

- (1) 계속 노력할 때 4명
- (2) 남의 생각을 해 줄 때(의리 이해심이 깊을 때, 남을 격려해 줄 때) 3명
- (3) 남을 존중할 때(존댓말을 쓸 때, 남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3명
- (4) 희생적으로 남을 도울 때 2명
- (5)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우울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주려 할 때) 2명
- (6) 동물이나 아이에게 친절하게 굴 때 2명
- (7) 동정의 눈물을 흘릴 때(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2명
- (8)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1명
- (9) 효성을 보일 때 1명
- (10)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충족시킬 때 1명
- (11) 은혜를 갚을 줄 알 때 1명
- (12)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때 1명

이들 12유목을 다시 줄이면 (1)꾸준한 노력을 하고 괴로워하고 욕구를 적나라하게 나타낼 때, (2)남의 생각을 해주고, 동정의 눈물을 보이고 고통을 함께 나눌 때, (3)남을 희생적으로 도울 때, (4)생물에게 친절할 때, (5)은혜를 알 때, 그리고 (6)자연의 미를 알아볼 때의 6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런 결과로 보아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고 욕구에 충실하고 감정(특히 고민이나 괴로움)을 솔직히 드러낼 때, 또 남을 생각하고 위해주고, 남을 고마워 할 때, 그리고 자연의 미를 음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다운 느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상당히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나에 대한 행동보다는 제3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감정을 느낌을 알 수 있다.

8. “사람답지 않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사람답지 않게 느끼게 하는 상황에 대한 유목은 원래 분류에서는 20개가 나왔으나, 이를 더 묶은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다.

- (1) 이기적이고 타인을 무시할 때(이기적일 때, 타인을 무시 경멸할 때,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을 내세울 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8명
- (2) 무자비한 행동을 할 때,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때릴 때,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잡아먹을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로 앉으려고 싸울 때, 마음을 좁게 쓸 때) 5명
- (3) 부도덕한 패륜적 행동을 할 때(여관방에서 비디오를 볼 때,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을 때, 금연 구역에서 담배 필 때, 약속을 어길 때) 4명
- (4) 지나치게 빈틈없이 행동하거나 자신을 꾸밀 때(자연스러운 욕망을 안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때, 허점이 없는 생활을 할 때, 여자가 표정이나 말투를 모두 꾸며 할 때, 원래 자기 모습 이상으로 잘 보이려고 노력할 때) 4명
- (5) 올바른 정동을 보이지 않을 때(근사하게 차린 여자가 거지 앞을 그냥 지나칠 때, 슬픈 장면을 보고도 농담할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때) 3명

이상에서 본 바로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느낌은 사람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의당히 보여야할 존경심, 자비심 등의 감정을 보이지 않을 때, 무자비하거나 잔학하게 행동할 때,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지나치게 허식적이고 빈틈없는 행동을 할 때 일어난다. 이로 보아 사람답지 않다는 느낌은 이웃이나 다른 생물의 느낌이나 입장을 생각해주지 못하거나 인륜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사람답고 아니고는 “사람다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9. “솔직하다고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원래 분석에서는 모두 15개의 다른 상황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을 더 묶은 결과 아래와 같이 되었다.

- (1)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정보를 드러낼 때(자신의 약점, 결점을 드러낼 때, 자신의

- 생각을 숨김없이 이야기 할 때, 고민을 털어놓을 때, 모르는 것을 시인 할 때, 시험때 공부했음을 털어놓을 때, 술을 잔뜩 먹고 이야기할 때) 9명
- (2) 말투가 직선적이거나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할 때(욕을 섞어 비판할 때, 직선적 어투를 쓸 때, 남의 장단점을 지적할 때,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할 때, 자기만의 표현을 써서 말할 때) 5명
- (3)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할 때 4명
- (4) 말을 쉽게 할 때 1명
- (5) 돈을 빌려주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데도 돈을 빌려줄 때 1명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 솔직하다고 느끼게 하는 행동은 우선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으로는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대체로 솔직하다는 인상은 자신의 경계를 풀고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공개에 속하는 종류의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때 공개하는 내용은 자기의 약점에 관한 것이다. 감정을 솔직히 내보이는 것도 일종의 자기 경계태세를 푸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 vulnerable하게 자신을 만드는 행위이다. 솔직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와도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말을 쉽게 하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솔직하다는 반응을 보는 사람에게서 유발하는 것 같다. 이 감정은 성격특성에 가까운 것이지만 대인관계의 지각의 경우에는 “대인감정”이지 성격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10.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원래 분석에 나타난 18개의 상황들을 더 묶어 소수의 유목으로 줄인 것이 아래에 나와 있다.

- (1) 거짓말을 할 때(뻔히 아는 일을 감출 때, 속마음과는 다르게 번지르르한 말을 할 때,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때, 읽지 않은 책을 읽은 척 할 때, 남의 칭찬만 할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을 볼 때, 항상 바쁘다고 하며 돌아다니는 여자를 볼 때, 술자리에서 과장된 애

- 기를 할 때, 상황이나 감정을 과장할 때) 9명
- (2) 변명을 할 때(잘못을 잘한 일로 돌릴 때, 자기 비호적 말로 일관할 때) 6명
- (3) 가식적인 행동을 할 때(남을 흉내내는 어투로 말할 때, 내가 얘기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을 때) 2명
- (4) 감정을 덮어두고 머리모만 행동할 때 1명
- (5) 우회적인 말투를 사용할 때 1명
- (6) 언행에 불일치가 있을 때(남에게는 결점이나 은폐된 본질을 드러내라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1명
- (7)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할 때(자기의 장점을 강조할 때) 1명

이상의 결과로 보아 솔직하지 않다고 보게 만드는 행동은 (1)거짓말을 할 때, (2)변명을 할 때, 그리고 (3)가식적으로 행동할 때로 집약된다고 말할 수 있다. 거짓말은 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것, 자신의 의사를 위장하기 위한 것,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한 것,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한 것, 자신의 처지를 위장하기 위한 것 등 다양하다. 변명은 이런 거짓 말하는 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11. “이해심 있게 보이게 하는” 시나리오

원래 분석에서는 모두 15개의 상황이 나왔으나 이들을 더 요약하여 줄인 것이 아래에 나와 있다.

- (1)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남의 말을 참고 들으며 기본이 상하더라도 내색을 안 할 때, 내 고민을 들어줄 때,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대화 도중 시종 나를 주시할 때) 10명
- (2) 의견이나 처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때(약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보일 때, 낯선 장소에서 친근하게 안내해 줄 때,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줄 때) 4명
- (3) 남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의지해 줄 때(여러 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지도자이면서 다수의 밑에서 손발이 되어줄 때, 나에게 의존해 줄 때) 4명

- (4) 위로해 줄 때(술 먹으러 가자고 하여 연애 얘기 등을 얘기해 줄 때, 실연했다고 하니 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건투를 빌어 줄 때) 2명
- (5) 무신론자가 불교신자를 대할 때 1명

이상에서 본 결과에 의하면 이해심 있게 보이게 하는 행동은 타인의 말을 경청해 주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믿고, 또 남의 의견이나 처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하는 타인에 대한 의사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런 태도나 행동은 상담심리학에서 늘 강조해 오던 바로 그런 태도와 행동임을 알 수 있다.

12. “독선적으로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독선적으로 느끼게 하는 행동들의 원래 유목 수(상황 수)는 14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것은 많은 빈도를 지닌 유목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 그 만큼 “독선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들 14개를 더 묶어 본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다.

- (1) 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집단의 일을 혼자 임의로 결정할 때, 함께 해야 할 일에 혼자만 빠질 때, 경찰이 책가방을 마구 뒤지며 불온서적 운운 할 때, 모임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얘기를 꺼내 분위기를 망칠 때) 10명
- (2) 자기 입장만 말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남의 말을 가로챌 때, 권위를 내세울 때, 내가 말할 때 동조의 빛을 보이지 않을 때) 6명
- (3) 단정적으로 말할 때(다른 모든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때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 단정적으로 말할 때) 2명
- (4) 감정을 심하게 노출시킬 때 1명
- (5) 자기 것을 너무 아갈 때 1명
- (6) 무신론자가 기독교 신자를 볼 때 1명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독선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행동의 핵심은 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며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해당하며 반드시 이기적인 행동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흔히 권위주의적인 행동과 유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13. “착하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원래의 분석에서 이런 관계감정을 야기하는 상황의 가짓수는 15개였는데, 이들을 다시 묶어 본 것이 아래에 나와 있다.

- (1) 남을 도울 때(남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때, 회수권을 빌려줄 때, 일을 친절하게 가르쳐줄 때,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타인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남의 어려움을 도울 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7명
- (2) 남에게 공손하게 대할 때(선배나 윗사람에게 공손할 때, 충고할 때 완곡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목소리를 작게 말을 떨리듯이 서투르게 할 때, 폭력이 오고 갈 상황에서 말로 해결할 때) 5명
- (3) 자신의 피해를 감수할 때(피로운 일을 당하고도 참아낼 때) 2명
- (4)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2명
- (5) 솔직하게 얘기를 걸어 올 때 1명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 착하게 보이게 하는 상황은 (1)남을 돕고 격정해 주는 태도와 (2)남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착한 감정은 착한 특성지각과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행동보다는 제3자에 대한 행동의 관찰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14. “못되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이에 대한 상황의 수는 원래 19개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을 더 묶어 본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다.

- (1)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자신을 위해 타인의 마음이나 욕신을 상하게 할 때, 자기일을 남에게 부탁할 때, 자신의 노력 이상으로 편법을 써서 이익을 보려할 때) 6명
- (2)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사소한 일로 공격해 올 때, 폭행을 할 때, 남의 욕을 자주 할 때, 경찰이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폭력으로 파괴할 때) 4명
- (3)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고 행동할 때(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버스에서 노약자를 외면할 때) 3명
- (4) 패륜적으로 행동할 때(불효할 때, 기본 도리를 지키지 않을 때, 선배에게 말하거나 까볼 때) 3명
- (5) 인색하거나 금전 관계가 흐릴 때(돈을 안 빌려줄 때, 빚을 안 갚을 때) 2명
- (6)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1명
- (7) 뻔히 아는 거짓말을 자꾸 할 때 1명

이상으로 보아 “못되게” 느끼게 하는 상황은 (1)이기적으로 굴 때 (2)폭력을 휘두를 때, 그리고 (3)패륜적 내지 불경스러운 행동을 할 때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15. “공평하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공평하게 느끼게 하는 상황들을 묶은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다. 어떤 확실한 관련된 상황이 없다는 것이 이 감정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 (1) 모든 사람에게 몫을 나누어 줄 때(각자에게 과자를 같은 양으로 나누어 줄 때, 각자의 일의 몫을 나눌 때, 여러 명이 모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대화 시간을 분배할 때) 3명
- (2) 관심이나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줄 때(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관심을 표명할 때, 모든 사람에게 비밀 얘기를 해줄 때, 자식을 편애하지 않을 때) 3명
- (3)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행동할 때
- (4) 이성간에 내가 계산을 할 때 2명

- (5) 사람의 구별 없이 분배가 이루어질 때 1명
- (6) 다른 사람의 특수 사정을 고려할 때 1명
- (7) 집단 운영에서 예산, 회계 등을 공표할 때 1명
- (8) 공공 시설을 자기 것처럼 아낄 때 1명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하게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란 다른 감정을 일으키는 장면에 비해 좀 모호하고 다양한 것 같다. 이 감정을 일으키는 장면이란 요약하면 (1)사람들에게 자기 해당하는 보수, 일, 시간 등 자원을 고루 나누어 줄 때, (2)관심이나 사랑을 골고루 분배할 때, (3)자기 이익과는 중립적으로 행동할 때, (4)사람의 계층이나 부류에 관계없이 자원을 분배할 때, 그리고 (5)다른 사람의 특수 사정(어려움 등)을 고려해 줄 때이다. “공정하다”란 관계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은 이와 같이 Adams(1965)가 이론화 한 것처럼 단순히 자원 분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6. “불공평하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일차 분석에서는 15개의 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들을 다시 더 묶은 결과 아래와 같이 되었다.

- (1) 차별대우를 할 때(선입관 등에 의해 차별 대우를 할 때, 친분에 따라 불공평한 분배를 할 때, 편애할 때, 특정인에게 무관심할 때, 이성간에 한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대화할 때) 5명
- (2) 불평등한 참여나 희생이 있을 때(딸들은 집안일을 하는데 아들은 낮잠만 잘 때, 동성 친구간에 계산을 꼭 내가 해야만할 때, 노력도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할 때, 비밀얘기를 내 앞에서 숨길 때) 4명
- (3) 자신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행동할 때(자신의 이해관계에 준해서 행동할 때, 자신의 이해를 강요할 때, 자기 이익만을 내세워 일이 깨질 때) 3명
- (4) 남의 것을 함부로 쓸 때 1명
- (5) 책임질 일 아닌 것에 대해 야단 맞을 때 1명
- (6) 모든 운영에서 예산 회계 등을 비공개로 지나갈 때 1명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1)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행동할 때, (2)차별대우를 할 때, 그리고 (3)불평등한 투입 내지 희생이 생길 때가 그것이다. 그밖에도 자신이 부당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겪게될 때와 같은 흔히 “억울하다”든지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 모임 운영에서 돈사용에 대한 공개가 없는 것도 불공평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런 운영이 불평등한 희생을 가지고 “우려”가 있기에 예비적인 반응으로 불공평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상황이다.

17. “미덥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¹⁾

- 1. 내게 관심을 보이거나 지지해 줄 때 11명
(생일 등 중요한 날을 기억해서 전화를 해줄 때, 기분 나빠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줄 때, 바쁜데도 내가 기분 나쁘거나 슬플 때 전화로 괜찮은지 물어올 때, 용돈이 없거나 외로울 때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 줄 때,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 줄 때, 고민을 끝까지 듣고 공감해 줄 때, 오랜만에 전화를 해줄 때, 내 행동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할 때 나를 이해해 주거나 충고해 주려 할 때, 화나서 한 심한 말도 들어주고 오히려 후회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게 위로해 줄 때, 같이 고민해 줄 때)
- 2.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내게 호의를 베풀 때 10명
(돈 없어 찢쩍 맴 때 슬쩍 대신 돈을 내줄 때, 미처 생각 못한 일을 챙겨 줄 때, 내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 해 줄 때, 어려운 약속이나 부탁을 지킬 때, 작은 일에 신경을 써 줄 때, 시험 전에 요약판을 복사해 주는 친구,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헤아려 대신 얘기해 줄 때, 잊어버릴 뻔한 물건을

1) “미덥다”와 “미덥지 않다”에 관한 자료는 1992년 11월 5일 추가적으로 새로운 표본(“일반심리 원서강독” 수강 심리학과 1학년생, n=24)에게서 수집한 것이다.

- 챙겨 줄 때, 급한 숙제 등을 도와줄 때)
3. 상대가 나에게 대한 신뢰를 보일 때 5명
(능력이 회의를 느끼는 나를 고무해 줄 때, 약속 시간을 어겼는데도 꾸준히 기다려 줄 때)
 4.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3명
(술자리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5. 비밀을 유지해 줄 때 2명
(개인적인 얘기를 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 함께 나쁜 장난을 했을 때)
 6.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 1명
 7. 믿어도 좋은 듯한 인상을 줄 때 1명

위 결과로 보아 “미덥게 느끼게 하는” 상황은 크게 (1)내게 물심 양면의 지지를 보내는 것과 (2)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내게 호의를 보이는 것으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18. “미덥지 않게 느끼게 하는” 시나리오

확인된 상황들을 묶은 것이 아래에 나와 있다.

1. 독선적으로 행동할 때 8명
(지나친 고집을 보일 때, 나를 비방하는 우스개 말을 할 때, 남을 욕하거나 괜히 짜증을 낼 때, 내 말을 오해하고 화를 낼 때, 내 잘못을 한심하다는 듯 비난하거나 질책할 때, 내 노력이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내가 진실되고자 한 노력을 알아주지 못할 때, 꼭 막혔다고 느낄 때, 돈 같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일 때, 내 농담에 화를 낼 때)
2. 속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할 때 6명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할 때,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이는 어색한 태도를 보일 때, 남이 다 아는 나에게 관한 이야기를 내 앞이라고 못할 때)
3. 약속을 어길 때 5명
(기다려도 약속 장소에 안 나올 때, 기대했던 대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에 10분 이상 늦을 때, 사소한 약속을 무시할 때)
4.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4명

(자기 어려움을 남이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남의 어려움은 생각지 못할 때, 자신의 일에만 집착할 때, 함께 먹고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려고 할 때, 책임을 떠넘길 때)

5. 나를 믿지 않거나 배척하는 눈치 있을 때 4명
(고민이 뭐냐는 말에 너는 말해도 모른다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 친구가 나보다도 다른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낼 때, 전화를 했을 때 왜 했느냐는 투로 말할 때)
6. 비밀을 간직하지 못할 때 3명
(1시간 전에 한 말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알려져 있을 때,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미덥지 않게 느끼게 하는 상황은 크게 (1)나를 고려해 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2)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3)나를 배척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 다룬 9개의 “관계감정” 차원들 중에는 과연 관계 감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심이 되는 것이 들어 있다. 그것은 겸손 대 아니꼬운 차원인데, 특히 겸손은 상대의 특성에 대한 지각이지 관계감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관계감정으로는 부적합한 차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려면 관계감정의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관계감정은 “나의 현 관계에 대한 감정 또는 평가로서 장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계감정은 우선 타인의 성격적 특성과 구분되어야 한다. “겸손”은 상대에 대한 감정이라기 보다는 타인의 성격특성을 말하는 것이라서 관계감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니꼬움”은 좀 다르다. 이것은 상대의 특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나의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요소를 지닌 반응이기 때문에 관계감정으로 볼 수 있다.

대인감정(interpersonal affects)(Kelley, 1984b)과 관

계감정(relations affects)간의 구분도 필요하다. 많은 경우 둘은 중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늘 중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줍음(shyness)은 타인에 대한 감정으로 볼 수 있지만 관계감정으로는 보기 힘들다. 수줍음이란 타인에 대한 감정반응이지만 관계에 관한 감정은 아니다. 관계 이전에 관한 감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대인감정이란 “나의 타인에 대한 감정”이란 의미가 강하다. 모든 타인에 대한 감정이 관계감정이 되지 않는다는. 실제에 있어서 대인감정과 관계감정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 사용된 18개의 감정들은 대개 대인감정에 해당되지만 또한 관계감정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관계감정의 성격이 특히 강한 것으로는 아마 “친함”, “서먹함”, “고마움”, “원망스러움”, “공평함”, “불공평함”, “미더움”, “미답지 못함”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9개의 쌍으로 된 “감정” 각각을 유발하는 사회적 행동(시나리오) 내지 상황에 대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은 관계감정을 일으키는 행동들(상황들)이 분명히 구별되는 특색 있는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감정에 대해서 대개 4개 이하의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감정의 경우는 상황이 보다 분명하나 어떤 감정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연구결과는 이번 조사에서 취한 방법(감정을 지정해 놓고 이를 유발한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을 보고하게 함)과는 반대로 상황(시나리오)을 주고 그것이 유발하는 감정을 적게 해도 상당히 안정된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다음 연구는 이런 예상이 맞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런 연구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정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이다. 이제까지의 심리학 내에서는 불안이나 공포나 분노와 같은 비교적 상황과 연결이 불분명한 정동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다른 보다 복잡한 감정은 정동분류 표에나 겨우 얼굴을 내밀 정도이고, 막연히 “강한 정동”, “쾌한 감정” 등의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동의 차원들만을 들먹

이거나 정동의 생리적 기초만을 다루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알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관계감정(억울함, 야속함, 고마움 등)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이제까지 다루어 온 불안,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은 부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성분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감정은 정동이라 불리는 것이다. 정동은 그것이 동물과 인간이 공유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좀더 시야를 넓혀보면 수줍음과 같은 감정이 있다. 이런 감정은 대인상황이라는 맥락 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감정인데 이런 감정에서는 생리적 성분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감정이 모두 관계감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감정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의 평가를 전제로 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주관적 요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추론이나 귀인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초보적인 연구에서 대인감정의 상당부분은 성격 특성과 부분적으로는 중첩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착하다”, “못됐다”, “이해심 있다”, “독선적이다”, “겸손하다” 등은 성격특성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하다”, “서먹하다”, “고맙다”, “원망스럽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등은 성격특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호작용의 특징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감정”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이다. 사실 관계감정은 관계의 일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관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용사들이 성격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이들은 성격만이 아니라 동시에 관계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어, “착하게 느끼는 것”은 상대의 성격에 관한 말인 동시에 관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관계감정 중에서 성격특성에 가까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또 관계감정과 성격판단(지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나온 반응에 따르면 감정을 유발하는 단서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떤 관계감정은 나에게 대한 상대의 행동에서 생겨나

지만 어떤 관계감정은 나에게 대한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타인이 제3자에게 하는 행동에서 주로 유발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덥지 않게 느끼게 하는 상황으로 제시된, “친구가 나보다도 다른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낼 때”나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을 때”와 같은 경우이다. 이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신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남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자신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타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감정의 연구는 타인의 나에게 대한 행동(즉 자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제3자에 대한 행동(즉 타인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성격특성지각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와 구별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을 응답자로 사용했는데, 보다 연로한 응답자를 사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젊은 응답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성숙한 사람들의 의존관계를 경험하지 못해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특정한 관계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감정에 대해 상황→감정의 연결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지식은 행동의 예견이나 통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매우 실용성이 있는 지식이다. 관계감정의 연구는 불안, 공포, 분노 등에 대한 전통적인 정동연구와는 달리 일상에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REFERENCES

- Abelson, R. P.(1983). Whatever became of consistency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54.
- Adams, J. S.(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 NY: Academic Press.
- Kelley, H. H.(1983a). The situational origins of human tendencies: A further reason for the formal analysis of struc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1), 8-36.
- Kelley, H. H.(1983b). A functional analysis of human tendencies based on a theory of situations.(Unpublished lecture note, UCLA).
- Kelley, H. H.(1984a). The theoretical description of interdependence by means of transition l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956-982.
- Kelley, H. H.(1984b). Affect in interpersonal relati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89-115.
- Kelley, H. H., & Thibaut, J. W.(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Y: Wiley.
- Thibaut, J. W., & Kelley, H. 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Y: Wiley.
- Weiner, B.(1980). The role of affect in rational(attributonal) approaches to human motivation. *Educational Researcher*, 9(7), 4-11.
- Weiner, B.(1983).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causal attributions.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The Seventeen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pp.185-209). Hillsdale. NJ: Erlbaum.
- Weiner, B., Graham, S., Stern, P., & Lawson, M. E. (1982). Using affective cues to infer causal though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78-286.

Situations Leading to Relations Affects: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Scenario

Jae-Ho Cha and *Jasook Koo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ceived as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personal scenario(Kelley, 1983a) and focused on *relations affects*(or interpersonal affects), as distinguished from emotions(e.g. fear, anger, joy, happiness) and simple affects(e.g. pleasantness) commonly studied in psychology. College students were presented with 18 relations affects comprising 9 affect dimensions(close vs. distant; grateful vs. resentful; humble vs. contentious; human vs. inhuman; honest vs. dishonest; tolerant vs. intolerant; kind vs. unkind; fair vs. unfair; trustworthy vs. untrustworthy) and were asked to indicate other's behaviors that are most likely to engender a given affect in themselves. Behaviors cited were grouped for each a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a small number of categories of other's behaviors(situations) are specifically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affect and that these situations did not overlap among affects.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scenario were discussed.